지하철(4호선) 혜화역 1번출구(도보 7분거리),
한성대입구역 4번출구(도보 5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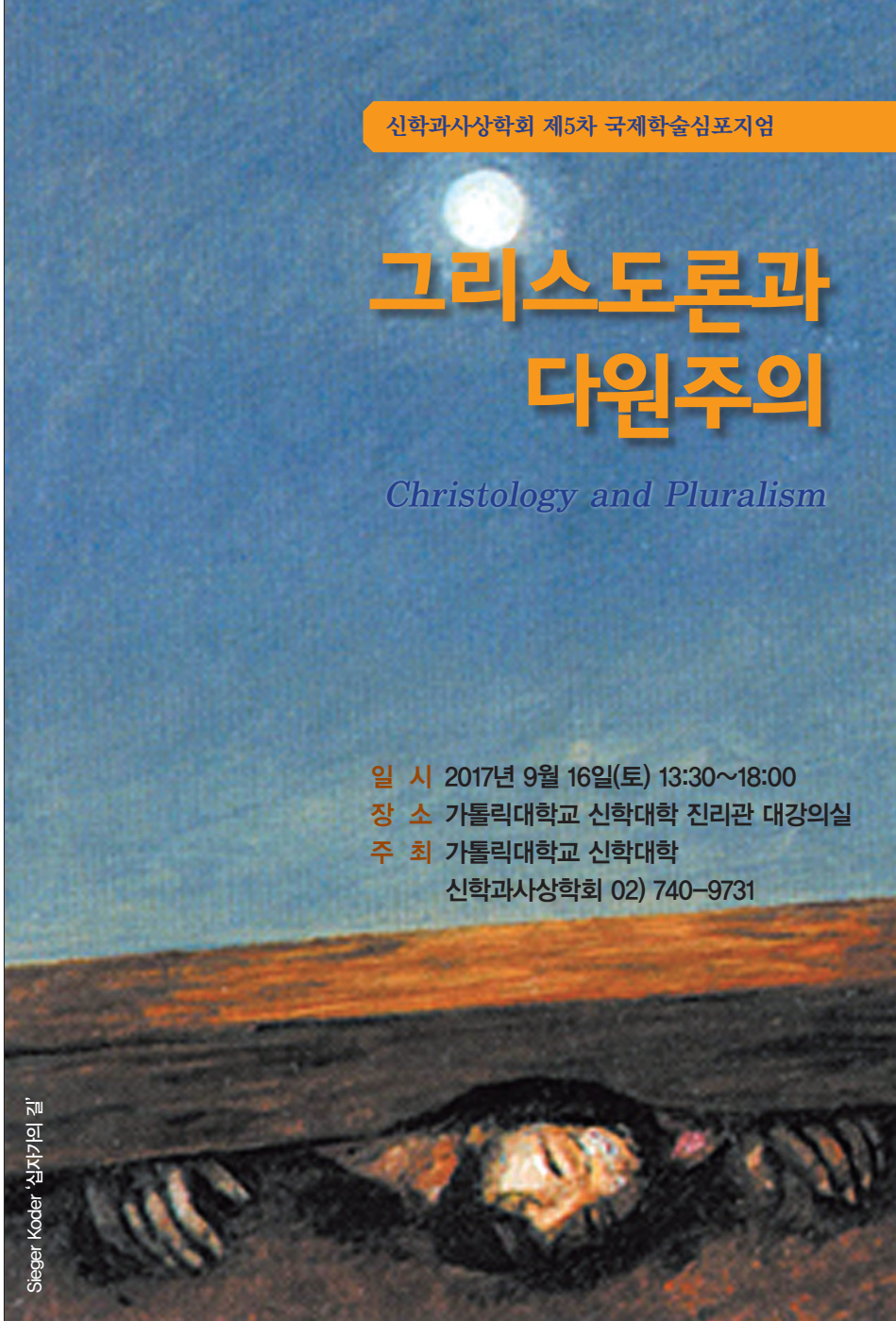
간선버스(파랑) 100, 102, 104, 106, 107, 108, 109, 140, 143, 150, 151, 160, 162, 171, 172, 272, 301, 601, 710번

지선버스(초록) 종로 07, 종로 08, 2112번

※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학과사상학회

03083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96-12
전화 02) 740-9731, 전송 02) 740-9783
http://stt.catholic.ac.kr, stt@catholic.ac.kr



신학과사상학회 제5차 국제학술심포지엄

그리스도론과 다원주의

Christology and Pluralism

일 시 2017년 9월 16일(토) 13:30~18:00
장 소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진리관 대강의실
주 최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학과사상학회 02) 740-9731

Sieger Koder '십자가의 길'

모시는 글

현대 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가 탈종교화 현상입니다. 2015년에 발간된 한국인의 종교심성에 대한 갤럽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의 절반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종교인 비율이 늘어가고 각종교마다 신자수가 줄거나 답보 상태에 있음을 갤럽조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계 전체가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부터 금년 5월의 새로운 정부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는 시민 혁명으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과 2017년 5월에 개최된 바둑계의 인간고수와 알파고의 대결은 인공지능과 인간 기능의 향상이라는 트랜스휴머니즘의 도래를 예시하는 시대적인 징표였습니다.

신학은 현실과의 대화를 통하여 전개됩니다. 신학의 방법론은 계시의 초월적인 진리와 역사적 현실과의 만남에서 비롯합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와 세계사적인 조류 안에서 신학을 한다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학과사상학회는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과 함께 "그리스도론과 다원주의"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성서신학, 조직 신학, 윤리신학을 가르치는 학자들이 저마다 오늘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관점에서 그리스도론을 펼쳐냅니다. 이 다원주의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론을 모색하고 또 그리스도론에 비추어 오늘의 문제를 이해하려는 신학의 향연(Symposium)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9월
신학과사상학회 회장 백운철 신부

· 일 정 ·

사 회 **조한규 신부**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13:30 개회사 백운철 신부
(신학과사상학회 회장 · 가톨릭대학교 신학부총장)

13:40 축 사 손희송 주교 (천주교 서울대교구 총대리주교)

13:50-14:30	**제1발표** 마태오의 메시아니즘과 구원론 발 제 백운철 신부 (가톨릭대학교 신학부총장, 성서신학 교수)
14:30-15:10	**제2발표** Christological Pluralism and the Singularity of Jesus 발 제 Fr. Jean Louis Souletie (파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장)
15:10-15:20	휴식
15:20-16:00	**제3발표** The Contribution of Christology to Dealing with Moral Pluralism 발 제 Msgr. Philippe Bordeyne (파리가톨릭대학교 총장)
16:00-16:40	**제4발표** Theological Anthropology for the World of Today (Gaudium et Spes 22) 발 제 Msgr. Marco Sprizzi (주한교황청 참사관)
16:40-17:20	**제5발표** 성령론적 그리스도론의 현대적 흐름과 쟁점 : 종교 다원주의 맥락에서 발 제 박준양 신부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교황청 국제신학위원)
17:20-17:30	휴식
17:30-18:00	종합 토론